『신앙과 학문』, 제 13권 1호 (2008. 4), 189-214.

비블리오드라마의 한국 교회 활용을 위한 연구

추태화(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논문초록

현대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 분야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기야 공교육의 위기라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교회 교육에서도 미래 신앙 교육방법에 진지한 대안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 교육은 교사 주도적, 인지적 학습방법에 치우쳐 학생들의 잠재된 가능성과 창의력을 간과한 면이 있었다. 교회 교육 역시 학교식 교육과 유사하여 성경 공부도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성경 내용이 성경 독자들에게 체험화되지 못하고 읽고 인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내용적으로 윤리적으로 육화(incarnation)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주지주의적 성경교육이 가져온 폐단을 극복하고자 교회 안에서 개발된 것이 비블리오드라마(Bibliodrama)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유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전개와 함께 교회에 도입된 성경 교육 및 상담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개념은 성경을 이성으로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과 감성, 영성, 행간의 상상력, 즉 온 몸으로 읽게 한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머리로만 아니요 가슴으로 말씀을 만나고 싶어 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적절한 문화적 매개체가 되리라 본다.

주제어: 비블리오드라마. 문화의 시대, 교회교육, 성경교육, 성경과 액션매소드,

2008년 3월15일 접수; 2008년 4월15일 수정; 2008년 4월19일 게재 확정

I. 들어가는 말
II. 비블리오드라마: 시대 환경과 정의
III. 비블리오드라마의 재발견
IV. 비블리오드라마의 활용
V. 맺는말: 열린 교회를 위한 가능성

I. 들어가는 말

제3의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처하게 된다. 국제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구조조정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회 또한 사회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노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무시될 수 없는 상황이다. 몇 해 전 시작된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생활 패턴이 바뀌어 여유와 레저가 보수보다 우선시 되며, 웰빙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는 가운데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이성희, 2002: 7, 11). L.스윗은 생활 패턴의 변화가 가져오는 신앙 패턴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영혼의 살사댄스"(Soul Salsa)라고 표현한다(스윗, 2004).[1)]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교인들에게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교회는 과거의 관습에 매여 고답적이거나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해선 안 되며, 더구나 교인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살아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한국 기독교 안에서 문화적 정

1) 사회변동으로 인한 신앙생활의 변화는 교계에서 격렬한 토론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로서 신앙관에도 변화를 준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되었다. 스윗은 나아가 "세상을 활보하는 영성(sandals spirituality)"(스윗, 2004:15), "역동하는 신학(theology in motion)"(스윗, 2004:20)라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체(停滯, Cultural Lag) 현상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 한국 교회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금은 평신도의 시대라 불린다. 과거와 같이 교역자들이 교회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협력하고 기능하는 시대이다(이성희, 2002: 234f). 평신도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교역자와 텍스트 중심의 성경 공부 방법을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유럽교회는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반성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비블리오드라마(Biblidrama)이다. 이 방법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여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3]

II. 비블리오드라마: 시대 환경과 정의

1. 비블리오드라마 성장의 시대적 환경

비블리오드라마가 교회교육 분야에서 한 대안으로 떠오른 데에는 시대적 배경을 간과할 수 없다. 첫째, 교육방법론에 대한 반성이 대안을 찾기에 이르렀다. 과거 일반교육계의 중심에 있었던 개념은 주지주의(intellectualism)였다. 주지주의 교육방법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성(reason)을 발견한 계몽주의 시대 이후 주도적으로 적용되어 오다가 산업화와 더불어 정착되었

2) 교회의 문화적 정체현상은 교회가 사회보다 더디게 변화한다는 부적응성의 문제이다. 이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에서 쫓아가기 바쁜 기독교문화의 후진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면 인권 문제, 성정체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 교회가 침묵하므로 대안이나 의견을 제때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

3) 비블리오드라마가 유럽교회의 반성에 기인한다는 대목은 교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로서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 중반기 유럽에서, 비블리오드라마는 이 시기의 불안과 위기 그리고 기회들에 대한 반추의 작용으로 발달되었다."(B.Krindorfer, 2008: 190).

다. 주지주의 교육방법이 이룬 성과는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후유증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인교육, 특기적성교육, 예술교육, 환경친화적 교육, 인권교육, 생태학적 교육 등 대안 교육이 도입된 것은 그러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였다.

일반 교육계에서 일어난 주지주의 교육에 대한 위기설은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윌호이트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주장한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은 위기에 처해있다."(윌호이트, 1991: 7).[4] 이 관찰을 교회 교육과 성경 교육으로 초점을 옮기면 결과는 역시 비관적이다. 기독교교육 학자인 김성수는 교회교육 분야에서 "획일적이며 전통적인 교육방법이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김성수, 1998: 32). 교회교육 현장가이며 교육이론가인 김만형은 교회 안에서 텍스트를 가르치는 데 집중하여 콘텍스트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만형, 2000: 23).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의 경우, 주교생들은 피동적인 교육대상으로 남는 게 보통이었다. 교회 안에 일방향적 주지주의 교육방법이 팽배해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일은 한국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인 것이다(김주환, 1993: 350).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이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탈 중심, 탈 전통, 해체를 기치로 내세우며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했다. 예를 들면 이성의 도구화, 인간의 도구화에 대한 성찰이 그것이다. 골먼이 지적한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그런 면에서 과거의 교육방법을 반성하게 해준다(골먼, 1996). 그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 학교와 사회의 적응 등에서 문제를 갖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성을 조절, 반응,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골먼, 1996: 89 f).[5] IQ에서

---

4) 그가 진단한 기독교교육의 현실은 가혹하다. "그것은 건강치 못하며 생명력이 없다. 교육은 파산지경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은 그 존립 가능성의 허식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윌호이트, 1991:7).

5) 골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소년과 관계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학교 내 폭력, 이성관계로 인한 갈등, 우울증, 이상행동, 비행 등

EQ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물결은 기독교에도 유입되었다. 목회가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와 교회, 목회, 교육 모든 영역에서 도태될 것이란 예견이 지배적이다(이성희, 2004: 2005). 스윗은 변화에 함께 움직이는 교회를 두고 아쿠아처치(Aqua Church)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스윗b, 2005).[6] 『IQ목회에서 EQ목회로의 전환』이란 제목의 책은 교회에 임박한 시대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옥한흠 외, 1998). 그렇다면 이는 교회 교육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변화에 상응하는 교회 교육,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교육은 어떻게 지평을 확대해야 하는가. 교회 교육의 성공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만 있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있다(핸드릭스, 1991: 90)고 주장하는 한 교육 전문가는 성경 교육을 담담한 이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로, "성경 본문이 전해주는 감정을 그들이 느끼게"(핸드릭스, 1991: 36)하라고 일러준다. IQ만으로 이를 온전히 완성하기 어렵다. EQ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성공적인 가르침은 지성을 계발시킬 뿐만 아니라, 감정을 휘젓고, 상상력에 불을 지르며, 의지를 소생시킨다"(핸드릭스, 1991:90). 이는 교회 교육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움직여야 함을 의미한다(김만형, 2000: 192)[7] IQ로만 성경에 다가갈 때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로 보이기 쉽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 성경' 은 의문과 비판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8]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구성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달심리학적 과정에서 성경 교육을

은 감정지능을 개발하고 EQ교육을 활성화 하면 많은 경우 해결할 수 있다.

6) 아쿠아교회는 물 위에서 항해하는 교회라는 뜻으로 스윗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바다 위를 항해하듯 변화와 함께 움직이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래지향적 교회를 의미한다.

7) 그는 교회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1. 실천적 연습을 통해 가르친다. 2. 감동적인 교육방법론으로 지식을 전달하라. 3. 표현을 이끌어냄 으로서 행동변화를 일으킨다.(김만형, 2000: 178).

8) 성경해석학에 등장하는 역사 비평적 방법은 이성을 극도로 활용한 예로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한다면 "상상력과 신앙 중심이야기(master story)"라는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박원호, 1999: 211-215).[9] 교회 교육이 종교적 가르침에 속한다고 본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적 상상의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용수, 2005: 127).

셋째, 문화와 체험의 시대라는 현대적 요구가 비블리오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지금은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개인의 참여(engagement)는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생활의 모든 부분으로까지 확대된다. 현대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의미와 가치를 얻지 못한다고 느끼는 시대이다. 따라서 각자의 체험은 삶과 사회적 행위의 주요한 동기가 된다. 체험과 참여행위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서는 통합적 자기확인을 의미한다.

기독교계에서도 그 과정은 유사하다(이성희, 2004; 스윗, 2004). 영성의 시대라는 말로 일컬어지는 이 시대에 기독교에서도 신앙인들의 개인적 체험은 중요하게 여겨진다. 문화와 체험의 키워드인 EQ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교육에서뿐 아니라 설교와 예배에도 점차 활용되고 있다. 설교와 EQ가 만나서 이야기식 설교라는 분야가 관심을 끌고 있고,[10] 예배에서도 열린 예배, 찬양과 경배, 드라마, 영화 활용 등은 참여자의 체험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경우이다(이성희, 2004: 스윗, 2004). 교회 교육에서는 참여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용수, 2005: 83).[11] 따라서 교회 교육에서도 경험중심교육과정(experiment centered curriculum)은 피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하겠다(교사의 벗 편, 1994: 15).

---

9) 주일학교의 변화는 일례로 다음 책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다. A.영(2004), 창조적 목회 프로젝트.

10) 이 주제에 관해서는 위어스비의 『상상이 담긴 설교』『이미지에 담긴 설교』 등을 참조.

11) 여기서 저자는 와이코프의 대안을 인용하고 있는데-"독서, 강의, 토의, 연극, 시청각, 집단역할, 여행, 기도, 교회출석"(고용수, 2005: 117)-그 중 독서, 연극, 시청각, 집단역할 등의 방법이 비블리오드라마의 기법과 밀접하다.

교육에서 경험과 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한 형태가 교육연극인데 이에 상응하여 기독교계에서는 비블리오드라마 운동이 일어난다. 연극이 교육의 주요한 방법과 매체로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교육연극(TIE: Theater in Education)은 "교육 현실의 구성원들 간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면서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민병욱 · 한귀은 편, 2004: 7). 이 방법이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극의 상상적인 힘과 테크닉을 이용"(잭슨, 2004: 17)하는 것처럼 비블리오드라마도 교회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동기유발을 제공하고 있다.

2. 비블리오드라마의 정의

앞에서 논의한대로 비블리오드라마는 시대적 요청에서 출발한다. 용어의 출현 시기는 대략 1967년 경 으로 잡고 있다(WBC, 1988: 151)[12]. 유럽 교회가 지나온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Derksen, 2005: 25 f) 한국 교회도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총체적 변화와 위기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에서 문화적 영향이 무엇보다 크다 하겠다. 한국 교계에서도 주지주의적 교육방법에 영향을 받아 일반학교의 전철을 교회학교도 밟고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학교 공부방법에 싫증을 느끼듯, 교회학교에서도 유사한 방법을 반복하여 흥미를 잃는 상황이 벌어진다(김성수, 1998: 32). 말씀이 체험화, 육화(肉化), 내면화 되지 못하고, 학교 공부에서처럼 성경을 읽고,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찾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학습방법이 아직도 답습되고 있다.[13] 비블리오드라마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몸

12) 용어의 정립 시기에 관해서는 1969-1970년에 말씀선포 방법론(Kerygma)과 목회상담(Seelsorge)의 양 분야가 만난 형성되었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N.Derksen, 2005: 84).

13) 도한호의 「2천년대를 향한 교회 교육」과 김경원의 「교회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는 이 점에서 같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사의 벗

으로 체험화, 육화, 내면화 하게 하는 대안이 된다.

서구에서는 비블리오드라마가 교회 교육, 특히 성경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영역은 성경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동안 연구되어온 비블리오드라마와의 인접분야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성경해석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에큐메니컬, 종교간의 대화, 사이코드라마, 종교적 매체(Medium), 청소년 사역, 입교 문답, 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 특수학교(시각, 청각 장애), 목회상담, 설교, 예전(禮典) 등등(Naurath, Pohl-Patalong, 2002).[14] 연령층에 대해서도 비블리오드라마는 어린이, 청소년 층 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년, 노년 등 성인교육에도 활용되어야 할 방법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블리오드라마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여기서 그동안 주장되어온 개념을 정리해 본다.[15]

엮음(1994), 『교회 교육 현장백과』 참조.

14) 여기에 더하여 심층심리학, 즉흥연기, 미학, 종교교육, 평신도교육 (제자훈련), 목회심리학 등과도 연관 짓는다.

15) 비블리오드라마를 실행하는 대표적 기관인 유럽 비블리오드라마 협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체험으로 구성된다. 성경 텍스트와 주제들이 교회적이며 사회적인 구체적 상황의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온다. 이들은 나아가 드라마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삶의 족적과 연관된다. 이로서 참여자 집단의 일원으로 성경과의 만남이 이뤄진다. 이때 창조적 연출과 책임 있는 성찰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교적 전통이 계승된다." (Bibliodrama lebt vom Experiment: Biblische Texte und Themen treten im Kontext der aktuellen kirchlich-gesellschaftlichen Situation in Beziehung zu den jeweiligen Erfahrungen und Lebensgeschichten der Teilnehmenden. Es kommt zu einer lebendigen Begegnung zwischen dem/der Einzelnen, der Gruppe als Ganzer und dem Text. Dabei wird im Wechselspiel zwischen kreativer Inszenierung und verantworteter Reflexion religiöse Tradition weitergeführt.) http://www.ucl.se/bibliodrama/g2.htm,
독일의 한 비블리오드라마 단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진리, 영혼의 진실을 행동을 통해 정리한다. 비블리오드라마 상황에서 성경은 참여자들에 의해 마치 연극에서처럼 공연되며, 서로 연관 짓는다. 개인들은 성경 텍스트에 관해, 개인의 행동과 행동의 동기에 관해 체험한다.

각 공연의 단락은 성경 텍스트가 형성하는 체험을 나누는 가운데 충분한 성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인들은 당연히 자신이 느끼는 바를 첨가할 수 있다. 선지식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비블리오드라마의 목적은 개인의 삶과 화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수용, 세계를 새로운 신비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http://www.bibliodrama.de/bibliodrama.html

미국에서 비블리오드라마 연구가로 활약하며 "Body and Bible"(황헌영, 김세준 역) 편집인인 크론도퍼(Krondorfer, B.)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BIBLIODRAMA is the reenactment of biblical stories in small groups of (adult) participants, who ar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biblical tradition in non-fundamentalist ways. It is a playful, spiritual, and dramatic approach to biblical stories. Participants identify with and interview biblical characters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process, biblical stories come alive.

In BIBLIODRAMATIC processes, the full range of human life experiences is addressed through readings and enactments of biblical stories: crises in families and among siblings; the joys and problems of communication between men and women, friends and foes, God and humans; ancient and contemporary dilemmas, such as justice and injustice, liberation and exile, love and betrayal, birth and death.

BIBLIODRAMA combines the study of texts with the sharing of personal experiences. It is a well-known method in European countries (among others, Germany, Sweden, Denmark, Netherlands, Finland) and is increasingly practiced also in the United States.

Though various differences exist between bibliodrama facilitators, BIBLIODRAMA is mostly understood as a process of guided enactment in which people are active participants. It can include improvisations, meditations, active imagination, role play, conversations, dream work, movement exercises, relaxation, deep readings, and techniques borrowed from the drama therapy.

BIBLIODRAMA workshops are not conducted as a means to convince people of the "truth" of a particular faith. Rather, bibliodrama speaks to those inside and outside the tradition, inside and outside congregational life. It is for Jews, Christians, and nonaffiliated people who are in search of meaning.

http://faculty.smcm.edu/bhkrondorfer/Biblio.htm

첫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을 온몸으로 읽는 방법"(Biblelesen durch den Koerper)이다(Kubitza, Schramm, 2004: 12-13). IQ시대의 성경 읽기는 성경과 독자가 이원화된 상태로 있었다. 그동안 성경독자는 성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과거 배운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인지했다. 이 방법은 고전적인 독서방법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지 못하게 한다. 성경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성뿐 아니라 감성, 상상력 등 온몸을 열어야 한다. 크론도퍼는 이를 성서이야기의 체현화(enactment), 재체현화(re-enactment), 재사유화(re-appropriation)라고 이해했다(Krondorfer, 2008: 12-21).

둘째, 비블리오드라마는 혼자 성경 읽는 습관을 지양하라고 권유한다. 참여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므로 자기만의 성경 이해와 해석에서 기인하는 독단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성경읽기는 더없이 좋은 나눔(sharing)의 기회가 된다. 교회 교육에서도 "타인과 함께 하고(being with others), 함께 행동하고(doing with others), 함께 사고하는(thinking with others)" 방법을 권장하는데(고용수, 2005: 117), 이 경우 비블리오드라마는 적절한 방법이라 하겠다.

셋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집단역동성(Gruppen-dynamik)을 띠므로 관계안의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언제나 크고 작은 집단을 형성한다. 보통 5-20 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눠 진행하는데 성경텍스트를 드라마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된다. 이때 '나와 너'(Ich und Du)가 함께 숨 쉬고 이해하는 바를 나누며 감정을 전하며 성경이 전개하는 상황 속으로 빠져든다.

넷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사회 운동(Gesellschaftliche Bewegung)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를 행하는 동안 교회 안의 소그룹들은 나중에 보다 큰 그룹이 되고, 그 큰 그룹들이 나중에 교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를 행하는 교회 안의 소그룹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전하게 된다면

체득된 내용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인간은 사회관계 속에서 성숙한다. 사회화 과정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참가자들은 그러한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다.

다섯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일련의 공연, 문화 예술적 작업과 효과를 갖는다. 독자는 성경을 읽고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모든 아이디어를 모은다. 이 과정에서 음악(악기, 성악, 소리 등), 미술(그리기, 조각 등), 글짓기, 분장, 의상, 마임 등등 총체적 예술행위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성경과 독자의 예술적 달란트, 상상력이 만나므로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내면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과거 교리와 교권 중심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서 경직된 몸과 마음이 풀어진다. 또한 감수성이 완화되어 다른 이와 교류할 수 있는 접촉점이 보다 쉽게 마련된다.

여섯째,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 독자로 하여금 창의성과 능동적 참여를 하게 한다.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성경의 내용을 드라마 형식으로 입체화 해봄으로서 인물, 사건, 이야기 전개 등의 요소를 몸소 추체험해보는 효과를 얻는다. 교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생동감 있는 현장으로 펼쳐지므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심리 치유적, 상담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웃들과 나눔으로서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비블리오드라마를 행하게 하는 의의는 무엇일까? 현대인들은 현실에서 종종 허무주의를 체험한다. 삶이 공허해지고 의미가 희미해질 때 사람은 희망을 잃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성은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초월적 체험(Transzendenz)의 색깔을 풍기므로 뉴에이지나 초월명상 등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의의라 한다면 삶의 진정성, 구원과 영생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질문을 연극적 상황에서 말씀을 전인적으로 체험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물질문명 속에서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의미요법(Logotherapy)과 같은 도움을 준다. 이 방법은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으로 돌아오기에(Krondorfer, 2008:

209) 허무한 종교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비블리오드라마의 방법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활용하는 방법은 시대에 맞게 보완되고 재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비블리오드라마의 재발견

1. 성경적 원형

비블리오드라마는 먼저 성경에서 그 원형(Archetype)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비블리오드라마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비블리오드라마의 시작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와 대화하실 때 그들에게 이야기만 하지 않으셨다. 그들로 하여금 극적인 상황에 들어가게 하여 자신의 심중을 표출하신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실 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다(창 22:17). 모세에게는 불에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출 3:1 f)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출 5장 이하). 하나님의 현존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화(visualization)하신 장면이다.

선지자들의 모습에서도 비블리오드라마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연극적 요소(dramatic performance)와 유사하다.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죄에 빠진 비참한 모습, 회복된 구원의 상태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마치 눈 앞 에서 전개되는 한편의 스펙터클 영화 장면 같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극적인 장면을 육화(肉化)하게 하신다.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된다. 그의 결혼과 가정을 들어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텍스트를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 실존의 질량감, 감정을 체험하게 한다. 성경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실생활에서 체험하는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화(劇化)하여 맛보게 한다. 성경해석은 텍스트에서 콘텍스트로 지향할 때 온전하게 된다. 호세아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비블리오드라마적 이미지를 통해 현재의 독자들에게 영적 현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약에 증거 된 예수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비블리오드라마적 원형이다. 아스머는 성경의 흐름을 드라마적 관점(dramatical perspective)으로 지평을 확대하여 이해할 것을 촉구하면서 구원사를 "신적 드라마"(Theodrama)로 해석한 발타자르(Hans Urs von Balthasar)를 거론하고 있다(아스머, 2007: 393). 예수님은 이야기와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다. 비유는 주님이 즐겨 사용하신 의사소통의 도구였다.[16] 또한 예수님이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진리를 계시하는 모습은 드라마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진리의 비블리오드라마적 연출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성경 독자로 하여금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일 1:1) 되었다고 고백하게 한다.

2. 예배론의 관점

비블리오드라마의 원형은 예전(禮典, Liturgie)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

16) 마가복음 4:34.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 하시더라".

세 시대의 예배에 연극적 요소가 사용되었던 예가 그것이다. 큰 입장 행렬, 작은 입장 행렬 등 예배에 따라 첨부된 형식이 있었다(김영재, 2000: 80-81). 당시 예배를 드리러 입장할 때 사제들은 십자가, 창, 칼, 채찍, 가시 등을 들고 예배당에 입장하였다. 떡과 포도주를 앞세우고 입장하거나, 성경책을 높이 받들고 입장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실제 도구들을 활용하여 가시화 하려했던 것이다. 부활을 설교할 때 교회 천정에서 십자가를 끌어올리므로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다. 일종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던 셈이다.

성만찬 예식에서도 비블리오드라마적 모형이 발견된다. P.틸리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고도의 매개체라고 이해한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다. 교회사에서 지속되어온 성만찬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독론의 주요한 내용을 비블리오드라마 형식으로 재연하는 행위라 하겠다.

3. 교육, 선교적 관점

교회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비블리오드라마의 원형은 성극(聖劇)이나 성인극(聖人劇, Hagiodrama) 같은 분야에서다(Kiehn, 1987: 7). 중세 시대에 교회에서 연극을 공연했던 동기는 교육과 선교에 있었다. 성경 내용이나 성인들의 생애를 연극으로 공연하는 데는 대상이 평민이나 불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신앙적 감화나 교훈을 주기 위해 연극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내에 그리스-로마 신화와 연극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었다.[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연극이 활용된 것은 연극적 요소가 삶의 기본행위

17)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문했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의 저술, 예를 들면 『고백록』에서 당시 공연장의 문란한 오락과 쾌락에 관해 반성하고 있다.

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현재 기독교계에는 문화선교(culture mission)라는 측면에서 드라마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육연극이 교육적 효과를 얻고 있듯이, 교회나 선교 현장에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질 때 그 영향력이 배가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그 속성상 연극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 성경 텍스트가 참여자들에게 체험에 직접 다가가게 한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놀이"(sacer ludus)라는 측면에서 만나게 하여 새로운 체험의 길을 열어준다(Krondorfer, 2008: 39-66).

4. 심리치유적 관점

현대 교회에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교인들이 찾아온다. 이는 교리적 설교로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한계를 느끼게 한다. 말씀의 역할 중 치유적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이 백성들의 약함과 병을 고치는데 집중되었듯 말씀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성경은 치유 사역을 실행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라 성경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만나게 하므로 개인 적용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나 독자의 입장에서나 장점으로 작용한다. 설교자는 성경 텍스트가 독자 개개인에게 적용되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독자는 자신의 문제에 해당되는 상황과 감정에 접촉하게 된다. 비블리오드라마가 치유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근거는 성경 텍스트가 전통적인 해석에 묶인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경 텍스트가 적용이 가능한 해석방법으로 자유롭게 되며(anwendungsorientierte Auslegung)(Naurath, Pohl-Patalong, 2002: 17 f), 이 적용들이 참여자들의 실존적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18] 성경적 상담과 치유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실정에서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과 독자의 실존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문화예술적 관점

현대는 개인의 다양한 기호와 자기표현이 가능한 시대이다. 여기에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개인의 예술성과 창의성이 인정받으므로 성경 텍스트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요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예술은 인간을 해방시키며 또한 자신을 발견하여 완성케 하려는 속성도 갖고 있다. 예술적 활동이 비블리오드라마의 형성 과정에 끼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성경 읽기는 주로 시각과 인지작용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대안 찾기도 만만치 않았다.

바른즈는 "비언어적, 전인적, 예술적, 즉흥적" 방법을 성경에 대입하여 연극적 상황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블리오드라마에의 길을 찾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Warns, Fallner, 1994: 14 f). 비블리오드라마 연구가 윙크는 "성경을 신체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두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Krondorfer, 2008: 253-271).[19] 음악가, 미술가, 연극인, 행위예술가, 신학자, 목회자, 종교 교육가들의 요구가 한 곳에 집중된 것이 비블리오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

18) 종래의 성경해석은 다분히 신학의 특정 주제에 고착되어있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탕자 이야기는 각각 죄, 순종, 잃어버린 자에 관한 설교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비블리오드라마에서는 참여자들에 따라 각각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탕자를 둘러싼 인물과 사건들 속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가능할 것이다.

19) 윙크는 이렇게 쓴다. "기독교적 신앙의 핵심적 상징체계를 지적 차원과 신체적 차원으로 함께 경험할 때 훨씬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Krondorfer, 2008: 262).

IV. 비블리오드라마의 활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블리오드라마는 그 원형이 이미 성경과 교회사에 내재해 있었다. 따라서 비블리오드라마는 역사적으로 그 활용도가 검증된 교회 내적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서구 교회에서의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모델을 소개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서도 활발한 비블리오드라마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1. 교회 교육

비블리오드라마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주일학교에서부터 활용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교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극적 요소는 성극, 절기극, 스킷드라마 등이다. 이는 교육극, 종교극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비블리오드라마가 기대하는 깊이에 이르지 못한다. 보다 깊은 성경텍스트와 독자 개인의 실존적 만남을 이루기 위해 비블리오드라마의 진지한 전개과정이 요구된다. 참여자는 신앙적 체험과 극 내용의 융합을 통해 깊은 영적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유아부에는 구연동화가 많이 활용되는데, 유아들에게 성경 내용을 극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되며,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될 것이다. 주일학교 교육에서부터 남녀 전도회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입체적으로 대하고, 몸으로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비블리오드라마가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주일학교의 기존 성경공부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한 다양한 기독교교육 방법을 개발하여왔다. 또한 성인 교인들의 성경공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현재 유럽 기독교계에서 성인 성경공부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 성경해석과 설교

철학에 있어서 학교철학(Schulphilosophie)이라는 용어는 무사 안일한 비현실적 사유체계를 질책하는 말로 쓰인다. 상아탑에 갇혀 현실의 실천적이고 다원적인 면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경해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비판이 있다. 성경해석(Exegese)을 현실과 텍스트 속에 내재하는 생동감을 배재한 채 문자해석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이다. 콘텍스트 속에 빠져들지 않고 여타 이론으로만 그 상황을 분석하려 한다. 거기에 시간적 공간적 격차가 개입하게 되고, 성경 본문과 현실 적용에 종종 간극이 발생한다. 웡크는 이 면에서 "성경해석학은 몰락했다"고 솔직히 주장하고 있다(Krondorfer, 2008: 259).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 내용을 현실과 분리시키지 않는다. 성경 역사를 상황에 가깝게 재구성하여 추체험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미드라쉬(Midrash)라는 방법을 활용한 것과 유사하다. 설교자는 본문을 읽고 주석과 사전을 동원해 해석하는 재래의 기계적 방식을 넘어서 스스로 본문의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 비록 상황이 정확하게 재연될 수 없다 하더라도 분위기와 정서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경 내용의 시간과 공간이 담고 있는 느낌은 현대 신학으로 고착화된 해석자의 독단을 극복하게 한다.

비블리오드라마가 성경해석에 도움을 주는 경우의 한 예는 실천신학적 성경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본문을 자세하게 펼쳐가는 과정에서 언어학적, 구조주의적 본문 해석으로 의미를 더욱 명징하게 한다는 점이다. 언어학의 기본이론인 구문론, 의미론, 실용주의적 해석이 드라마적 전개, 플롯(Plot)의 도움으로 이해하므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또한 사건의 전개, 인물의 성격, 대화, 지문 등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서 본문의 입체성, 생동감, 사건과 인물간의 관계, 갈등과 화해, 대결구조 등을 더욱 세밀히 관찰하게 한다.

3. 상담과 치유

비블리오드라마는 집단으로 운영된다. 그룹 참여자들은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 명상하면서 상황을 그려본다.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일체감을 주는지 느끼며 그 역할의 자리에서 상상한다. 그런 다음 참여자들은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교제와 나눔이 된다. 또한 성경 속 사건과 인물, 상황과 정서, 대화와 느낌 등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게 된다.[20]

현대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 가운데 부정적인 것도 적지 않다. 그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죄책감, 경쟁심,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 분노, 미래에 대한 근심, 가정안의 대화 부족, 가족의 역할 갈등, 자존감 상실, 폭력에 의한 상처(물리적 폭력, 언어-, 성폭력 등), 신뢰상실, 절망감, 상대적 박탈감 등이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청중의 세분화된 심리상황을 일일이 고려할 수 없기에 몇 가지 유형으로 일반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청중의 긴급한 내적 요청과 관계없는 본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를 성경 본문과 연결하고 또한 참여자의 자발성과 관계 지으면 한편의 비블리오드라마는 직접, 간접적으로 카운슬링의 기능을 하게 된다.

4. 평신도 교육

현대 한국 교회를 지적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는 경직성이라는 단어이다. 첫째, 감정의 경직성이다. 신앙인들 가운데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잘못 다루어

20) 사이코드라마를 개발한 모레노의 주장과 같이 도식적인 정신분석으로만 심층심리학적 내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교회 안에서 신학적 주장과 교리만으로 교인들의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성경이 상담적 치유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방적 선포보다는 상호적 소통에서 성경이 다뤄지게 해야 할 것이다.

내면에 부정적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맥그래스는 지적한다. "죄, 죄책감, 소외를 강조하는 성경 말씀에 지나치게 몰두해 자신의 부정적 자존감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강단에서 긍정보다는 비판과 훈계에 주력하는 기독교 문화가 부정적 자존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맥그래스, 2003: 106 f).

한국 교회는 게다가 특정한 관습이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도 점잖아야 한다는 유교적 체면문화, 하나님 면전에서 경박하게 웃으면 안 된다는 형식적 경건성 등이 긍정적 감정들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기감정을 드러내지 못하여 죄와 용서, 선와 악, 자존감과 자아상실 등의 이중적 감정 사이에서 상처를 치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상담가들은 지적한다(씨맨즈, 1996).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 점은 왜곡된 신앙관이 거꾸로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둘째, 교육의 경직성이다.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는 교역자의 의존도가 심하다. 성경 공부 같은 분야에서는 그 상태가 더욱 심하다. 평신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 목회자에게 해석을 기대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자발적이다. 성경도 스스로 읽고, 해석하면서 역동적 상황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공연예술적 과정을 거친다. 대화하고 의견을 조절하고 하나의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서로의 표현을 수용해야 한다. 여기서 참여자들은 집단역동성을 체험하게 되고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을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아가 성경본문을 나누고 드라마로 구성하면서 성경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자기만의 시각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열게 된다. 평신도들의 경직성은 비블리오드라마를 잘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게 된다.

5. 절기와 특별활동

한국에서 지켜지는 교회절기는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유명무실해 보인다. 절기의 이름은 있지만 절기에 따른 문화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 교회 120년 선교사에 하나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문화로 정착되지 못한 교회절기는 구호에 그치는 정도이다. 이제부터라도 교회절기에 교인들이 삶과 문화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절기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비블리오드라마는 취약한 절기문화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유럽의 도시들은 기독교 역사로부터 정착된 문화유산을 누리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부분이 성경 텍스트와 연관이 있다.[21]

비블리오드라마는 교회 안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열린 예배 등과 같은 구도자 예배에 활용된 스킷드라마도 비블리오드라마의 한 지류라 하겠다. 앞으로 주일학교, 청년, 장년층이 비블리오드라마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참여자들의 신앙을 역동화시키게 될 것이다.

V. 맺는 말: 열린 교회를 위한 가능성

사회의 변화가 기독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개화기 이후 사회를 인도해 왔는데 현재는 거꾸로 사회가 교회에 변화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문화적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변화요

---

21) 예를 들면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오버아머가우라는 도시는 페스트가 창궐했던 17세기에 이를 이겨내게 한 사건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극을 공연했다. 초연은 1634년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연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극의 성격이 짙었다. 신약에 증거 된 예수의 생애를 공연하여 문자 그대로 비블리오드라마를 행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마을주민이 신앙심을 바탕으로 대거 연기자로 참여했는데, 현재는 10년마다 공연되며 이 도시의 문화상품으로 유명해졌다.

청은 교회가 더 많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점이다. 무엇이 한국 교회를 열린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는가. 한국 교회가 공교육의 위기설과 같이 교회 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문화를 이끌어가며 변혁을 실행하여 사회가 복음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22] 그 시도의 하나로써 교회 교육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이러한 기대의 중심에 서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몸을 움직인다. 온 몸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본문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파고들어가 현재에서 말씀을 현실화(Realisation)한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Protagonist) 하기도 하고, 정반대의 배역(Antagonist)을 해보기도 한다. 심지어 사탄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기도 한다(이 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 목적은 실존과의 만남이며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한 자유에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도구이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전도와 선교 등에서 능동적이었지만 성경해석과 문화적 적용에 대해서는 수동적이었다. 그리하여 이중성 속에 갇혀있었고, 자발성과 창의성이 약화된, 신앙에 있어서 마치 성인아이(Adult-child)와 같은 면이 없지 않았다. 한국 교회의 성숙과 교인들의 내적 성숙이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비블리오드라마는 그렇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비블리오드라마가 문화의 시대를 맞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대 한국 교회에 새로운 대안이 되리라 기대한다.

---

22) 교회가 시대의 문화에 뒤지거나 끌려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시대의 문화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있는 자세를 열린 자세라 하겠다. 교회가 이런 자세로 어떻게 시대를 읽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히 이성희, 스윗의 저서를 참조.

참고문헌

고용수 (2005), 『교회의 기독교교육과정』,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교사의 벗 편 (1994), 『교회교육현장백과』, 말씀과 만남.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부 편 (1992), 『현대기독교교육론』.

김만형 (2000), 『SS 혁신보고서』, 서울: 규장.

김성수 (1998), 『내일로 가는 교회교육』, 서울: 영문.

김영재 (2000), 『교회와 예배』,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김재은 (2004), 『기독교성인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민병욱·한귀은 편 (2004), 『교육연극의 현장』, 연극과 인간.

김주환 (1993), 『기독교교육사역론』, 대한기독교교육협회.

박원호 (1999), 『신앙발달과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박찬식 외 편 (2006),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신현광 (1997), 『교육목회와 교회성장』, 민영사.

옥한흠 외 (1998), 『IQ목회에서 EQ목회로의 전환』, 서울: 기독신문사.

이성희 (2002),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영, A. & A. 스탠리 (2004), 김희수 역, 『창조적 목회 프로젝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맥그래스, A. (2005), 박규태 역, 『기독교의 미래』, 서울: 좋은 씨앗.

맥그래스, A. & J. 맥그래스 (2003), 윤종석 역, 『자존감』, IVP.

골먼, D. (1996), 황태호 역, 『감성지능』, 서울: 비전코리아.

씨맨즈, D. (1993), 송헌복 역, 『상한 감정의 치유』, 두란노.

핸드릭스, H. 외 (1991), 이상일 역, 『교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횃불.

윌호이트, J. (1991), 신서균 역, 『현대기독교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스윗, L. (2004),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 서울: 좋은 씨앗.

_____ (2005), 김영래 역, 『미래 크리스천』, 서울: 좋은 씨앗.

_____ (2005 b), 김영례 역,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서울: 좋은 씨앗.

아스머, R. (2007), 장신근 역,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한기독교서회.

잭슨, T. (2004), 장혜전 역, 『연극으로 배우기』, 소명출판.

위어스비, W. (1997. 2쇄), 이장우 역, 『상상이 담긴 설교』, 요단출판사.

_____ (1997 b), 이장우 역, 『이미지에 담긴 설교』, 요단출판사.

Krondorfer, Bjorn (2008), ed, *Body and Bible*, 황헌영. 김세준 역, 『비블리오드라마』, 서울: 창지사.

Derksen, N. (2005), *Bibliodrama, Impulse fuer ein neues Glaubensgespraech*, Duesseldorf.

Kubitza, E. and Schramm, T. (1987), *Bibliodrama als lebendiger Gottesdiesnt*, Birkach 2003.

Kiehn, A. u. a (1987), *Bibliodrama*, Stuttgart.

Martin, G. M. (1995, 2.Aufl.), *Sachbuch Bibliodrama: Praxis und Theorie*, Stuttgart.

Naurath, E. and Pohl-Patalong(hrsg.) U. (2002), *Bibliodrama: Theorie-Praxis-Reflexion*, Stuttgart.

Warns, E. N. and Fallner, H. (1994), ed, Bibliodrama als Prozess. *Leitung und Beratung*, Bielefeld.

사전:

EKL, *Evangelisches Kirchenlexikon*, Band I, Vandenhoeck & Ruprecht, Goettingen (1986), 487-488.

WBC, *Woerterbuch des Christentums*, Guetersloher Verlagshaus Mohn, Zuerich, Benzinger (1988), 151-152.

인터넷사이트:

http://www.soul-healing.org/ (크리스챤 마음연구원)

http://www.bibliodrama-weiterbildung.de/

http://www.bibliodrama-gesellschaft.de/

http://www.bibliodrama.de/

www.ucl.se/bibliodrama

Abstract

A Study on Application of Bibliodrama for Korean Church

Tea-Wha Chu (Anyang University)

Nowadays the contemporary society changes very fast. Even one can find this phenomena everywhere, in politics, economics, culture, education etc. Thus the educational range is perhaps that, which could not adapt to it in accordance with. One calls the crisis of the official education. On the basis of this situation the church situation shows up likely. Therefore the future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are feared.

In the past the educational method seemed teacher-oriented and too rationally one-sided. We called this intellectualism, reason-oriented method. The students could not bring their creativity out in this circumstance entirely. The Bible learning in the church becomes also like at school. The believer could read only by the head the Bible. Therefore what he read in the Bible, is not brought to the heart of the reader. The Bibliodrama wants to overcome this real situation which the intellectual learning of the Bible caused.

Bibliodrama is considered as a method, which is welcome with the postmodernism into the church for

Bible-education and Counseling in Europe. One can read thereby Bible with feeling, spirituality, imagination between the lines. The Bible reader reads Bible not only by the reason, but also by the heart. If one can use this method well, one can call the Bible word here and now to itself. We hope that Bibliodrama becomes more for the openness of the Korean church suitable cultural medium.

Keywords: Bibliodrama, Age of Culture, Education in Church, Bible Education, Bible and Action Method, Dramatical Application for Bible